일 주 문



인드라망 월례법회

인드라망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2월 17일 오후 2시 신정동 인드라망 교육도량에서 12월 월례법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외환은행 협약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11월 28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VIP 및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알리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구산 스님 28주기 추모법회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2월 7일 송광사 대웅보전에서 구산 스님 제28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사 성도재일 등 모연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2월 10일~1월 10일 점등되는 성도재일 등을 모연한다. (02)732-2115



열린선원 합동천도재

태고종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12월 11일 열린선원 법당에서 한글법요와 전통작법으로 올리는 특별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이연택 동국대 총동창회장

이연택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은 11월 30일 동국대총동창회에서 제26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21회 창하문학상 수상

임완숙 교사불자연합회 명예회장(중앙신도회 지도위원)은 11월 26일 한국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제21회 청하문학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장에 세영 스님



조계종 초심호계원장에 세영 스님(신륵사 주지)이 선출됐다.

초심호계원은 11월 28일 제88차 심판부를 열고 前 호계원장 재원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세영 스님을 새 원장으로 호선했다.

초심호계원은 이날 9건의 징계사건과 1건의 징계외사건을 다뤘다. 한편, 새문안교회에 토지 임대를 하면서 이면 계약을 해 징계 회부된 수은 스님(파주 보광사 주지)에 대한 심리는 연기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원심회 공동체 만드는 것이 꿈

창립 23돌 맞은 엄재면 원심회 회장



"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조계사 장애인 포교단체인 원심회에서 엄재면 회장이 포교활동을 한지도 6년째다. 처음에는 봉사자들과 수화로 통역하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 말씀만 권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원심회 회원들은 쉽게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화는 7000여 단어로만 표현해야 하는 제한적인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원심회 회원들에게는 한글이 필요했다.

"회원들 중 30~50대는 기본적인 한글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문서작업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니 수화를 습득하고 구사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 밖에요. 불교포교에 앞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엄재면 회장은 2012년 3월 정식 개교할 예정인 원심회 한글학교를 9월부터 회원 1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잘 교육받아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포교사 고시도 응시하게 할 생각입니다."

원심회는 창립 23주년을 맞아 11월 13일에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두근두근, 두드림' 행사를 열었다. 한글학교 재원마련을 위한 행사였다.

원심회 한글학교는 엄 회장이 계획한 청사진의 일부이다. 엄 회장은 원심회 공동체를 구성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수행·교육·생활공동체를 만들어 원심회 회원들을 비롯한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원심회는 수행공동체를 위해 매주 수화법회, 수화명상, 경전공부반을 매주 일요일 진행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교리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원심회는 한글교육, 수화통역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종이접기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엄재면 회장은 "수행·교육 공동체가 형성되면 청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취업 및 노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02)720-4528 원심회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2-912-927

이나은 기자

원로 불자가수 복지시설 설립

나운하 대한불자가수협회 회장



"창립기념 법회를 통해 앞으로 대한불자가수협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쳐나가길 서원합니다."

대한불자가수협회(회장 나운하, 이하 불자가수협회)가 12월 20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대한불자가수협회 창립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올해 4월 12일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나운하 대한불자가수협회 회장(사진)은 기념법회를 앞두고 "그동안 가수협회의 미비했던 활동들이 기념법회를 계기로 유래 없던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나운하 회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불자가수협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젊은 불자가수영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운하 가수는 취임이후 가수 윙크, 심신 등을 불자가수협회 회원으로 영입했다.

나 회장은 "가장 큰 서원은 생계가 어렵고 건강이 악화된 원로한 불자가수들이 노후에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며 "불자가수협회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동국대, 美콜로라도대 MOU 체결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원장 이종대)은 11월 22일 동국대에서 미국 콜로라도 대학 브레케지센터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양 대학의 학습과 연구를 위한 학생 교환 △상호 방문에 의한 교수·학자·관리자의 교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보와 출판물의 교환 △협력적 교육과 연구의 이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식에는 이종대 동국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과 김한창 연구교수, 차승재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비롯해 콜로라도 대학 브레케지센터의 댄 보오드(Dan Boord) 센터장, 미술사학과의 루이스 발도비노(Luis Valdovino) 교수, 박종필 교수, 한금현 객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종대 원장은 "영상문화콘텐츠라는 공통된 영역으로 특성화 되어있는 양 기관이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역량을 더욱 극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댄보오드 브레케지센터장(왼쪽)과 이종대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장

KBS '다르마' 불교언론문화상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KBS의 다큐멘터리 '다르마(윤창규·최근영 PD)'가 선정됐다고 11월 28일 밝혔다.

TV부문 최우수상은 대구MBC '고려 초조대장경(마승락 PD)'이 우수상은 KBS '신학자 폴 니터의 한국 禪기행, 나에게 너를 묻다(안중섭 PD)'에게 돌아갔다.

라디오부문은 최우수상은 국악방송국 '영산재, 그 향기 누리 가득히(전성희 PD)'이 우수상은 BBS불교방송 '다시 태어난 삼국유사, 500년의 꿈(박주원 PD)'이 선정됐다.

신문부문은 최우수상은 법보신문 '연등회 왜 문화재 지정돼야 하나(권오영 기자)'이 우수상은 주간불교 연중캠페인 '장기기증은 또 다른 보시(편집국)'가 선정됐다.

불교언론인상은 강신철 前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이 특별상은 백성호 중앙일보 기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윤창규(왼쪽), 최근영(오른쪽) PD

조계종자원봉사단 '아산상' 수상

2만 봉사자 활동 중

조계종자원봉사단(단장 종선)이 11월 25일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진행된 '제23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아산상은 1989년 재단 설립자인 아산(峨山) 정주영 초대 이사장의 뜻에 따라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거나 효행 및 가족사랑을 실천해 사회의 귀감이 된 개인·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산상 수상자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각계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6월부터 300여 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지실태조사, 본심사와 아산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1995년 창립된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설단체다.

현재 2만 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긴급재난 발생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2011한국불교기자상 발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조용수)는 11월 21일 2011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에 '군승자질 속앓이 군포교'를 보도한 '주간불교' 김치중 기자를 선정했다.

기획해설보도부문에는 '세계불교를 가다'를 보도한 '불교신문' 홍다영 기자를, 취재보도부문에는 '사찰 도로명 주소 변경 문제 외'를 보도한 'btn' 신중일·정영석 기자를 선정했다.

2011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엘마레따'에서 개최하는 '2011불교언론인의 밤'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 도 모 집

종도 강원교육 , 집체 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가능
종도가 아니라도 강원교육 동참가능
불교를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울 곳이 있습니다.

스님 흉내 낸다는 소리 그만 들읍시다.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